

‘400만원 뺏’에 갇힌 성매매 여성

조폭 출신 브로커가 석달마다 소개비 받고 갈취...8년째 못 벗어나

이탈했다 납치·감금·폭행도 서부경찰 1명 구속·1명 추적

자신이 ‘관리’하던 20대 성매매 여성이 자신이 연결해준 성매매업소에 무단 이탈했다는 이유로 광주에서 서울까지 쫓아가 납치·감금하고 폭력을 휘두른 30대 조폭 출신 성매매업소 브로커와 직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폭력을 휘두른 이유에 대해 “소개비 명목으로 3개월마다 400만원씩 (내게) 바쳐오던 여성이 관할권을 벗어나려 했기 때문이다”고 진술했다. 또 “성매매업소 간 전국망이 있어 관할권을 벗어나면 금방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서부경찰은 자신이 소개해준 집장촌을 떠났다는 이유로 성매매 여성 A(28)씨를 찾아가 때리고 납치한 후 감금한 혐의로 K(27)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K씨는 자신의 4촌이기도 한 성매매업소 소개업체 사장 고모(34)씨의 지시를 받고 지난 17일 새벽 6시30분께 서울 성북구의 한 집장촌에서 A씨의 얼굴 등을 때리고 차량에 강제로 태워 광주시 서구의 아파트로 끌고 와 8시간 가량 가둔 혐의다.

고씨는 A씨를 비롯해 성매매 여성 10여 명을 관리하며 전국의 성매매업소에 연결하고 있으며, 현재 경찰의 추적을 피해 행방을 감춘 상태다.

피해여성 A씨는 고씨 일당의 소개로 대구지역 성매매업소로 갔다가 자신이 최근까지 몸 담았던 서울지역 업소로 무단 이탈했다는 이유로 납치·감금·폭행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를 벗어나지 하루 만에 고씨 일당이 A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었던 데는 ▲성매매 여성마다 관리하고 뒤를 봐주는 세력(브로커)이 누구인지 업계가 알고 있으며, ▲브로커와의 합의 없는 여성들을 고용해선 안 된다는 묵언의 ‘룰’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고씨의 소개로 서울에서 대구로 갔던 A씨가 ‘대구업소 생활이 너무 힘들다. 다시 여기서 일하고 싶다’며 3일만에 되돌아오자, 이 업주가 곧장 고씨에게 “너희 아이가 왔다. 일을 시켜도 되는 것이냐”며 확인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됐다는 것이다.

수도권에서 나온 자란 A씨는 8년여 전 광주에 왔다가 고씨 일당과 인연을 맺고 다방에서 잠시 일한 뒤 성매매업소로 옮겨졌다. A씨 자신도 특별한 재주가 없어 일

할 곳이 필요한 탓도 있었지만, 고씨 일당의 입장에서 보면 A씨를 성매매업소에 소개할 경우 일시금으로 300만~400만원의 소개료를 챙길 수 있어 이들은 A씨가 성매매에 발을 들여놓도록 유도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한 번 발을 들여놓은 A씨는 “눈 딱 감고 열심히 하면 금방 돈을 모을 수 있다”는 고씨 일당의 꾀고 달리 8년째 성매매 업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3개월마다 소개업자 측에 400만원을 상납해야 하는데, 그날그날 벌어들이는 돈도 포주와 나눠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일을 할 때마다 포주가 부과하는 터무니없는 벌금은 A씨를 여전히 ‘포주와 소개업자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는 여자’로 만들었고, 돌아갈 곳과 할 수 있는 일 등 사회복귀의 기반이 없는 그에겐 성매매가 벗어날 수 없는 ‘뺏’이 됐다.

성매매 여성들의 상담을 맡고 있는 ‘언니네’ 관계자는 “피해 여성이 단지 성매매에 종사했다는 이유로 낙인을 찍어선 안되며 그들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주 시민 3명 중 2명 “5월이면 불안·우울”

5·18묘지 등 찾은 173명 설문

5·18의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1980년 5월을 겪은 광주 시민 상당수는 36년이 흐른 지금도 5월이 되면 불안감과 우울감을 호소하는 등 5·18로 인한 심리적 후유증을 갖고 있다는 설문결과가 나왔다.

특히 광주시민 10명 중 9명은 5·18만 생각하면 분노를 느끼고, 10명 중 7명은 여전히 (5·18과 관련해) 광주만 고립되어 있는 것 같다는 응답을 내놓아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광주 트라우마센터에 따르면 지난 17~18일 광주시 금남로 옛 전남도청과 광주시 북구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은 시

민 17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5월이 되면 뭔가 불안하고 우울하다’는 질문에 65.8%가 ‘그렇다’고 답했다.

“일하지 않는데도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생각이나 그림이 떠오른다”는 항목에도 79.1%가 ‘그렇다’고 했고, ‘80년 5월과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날까 두렵다’는 물음에는 64.6%가 ‘그렇다’고 답했다.

‘5·18을 생각하면 분노를 느낀다’(94.9%), ‘5·18과 관련해 광주만 고립된 것 같다’(77.9%), ‘5·18을 생각하면 죄책감을 느낀다’(67.1%) 등 문항에도 그렇다는 답변이 압도적이었다. 이 같은 응답 결과를 토대로 트라우마센터는 광주시민 상당수가 ‘오월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월 증후군은 1990년 당시 전남대 심리학과 교수인 오수성 교수가 만들어낸 말로 5·18을 경험한 시민, 관련자와 가족이 5월만 되면 불안하고 우울한 기분으로 사로잡히는 현상을 뜻한다.

설문 결과와 시민 인터뷰 내용에 대해 강용주 광주트라우마센터장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거부, 최초 발표명령에 대한 진실을 둘러싼 논란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 시민들의 분노를 키우는 것 같다”며 “우리 사회가 5·18을 제대로 알고 평가하는 것과 사회 정의 실현이 광주를 치유하는 데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설문은 남성 125명(79.1%), 여성 33명(20.9%) 등 173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연령대는 70대가 49명(31%), 50대가 44명(27.9%), 60대가 41명(26%) 순으로 많았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중복분양 사기’ 시행사 대표 등 출국금지

서부경찰, 체포영장 발부 추적

광주시 서구 농성동 골든힐스타워(오피스텔) 중복분양 사기 사건(광주일보 5월 23일자 6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기행각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시행사 대표 등 관련자들을 출국금지 조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서부경찰은 골든힐스타워 시행사인 지엔디도시개발주식회사 대표 박모(57)씨와 이사 이모(50)씨, 황모(33)씨 등 3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행방을 감춘 시행사 대표 박씨에 대해서는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추적 중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피해자 254명이 지난 19일 공동

으로 제출한 고소장과 피해자 조사 등을 통해 사건의 윤곽을 파악하고 25일부터 을 초거지 법인 대표를 맡은 이사 이씨, 신탁사 관련 업무를 본 이사 황씨 등 관련자들의 소환 조사에 돌입한다. 피해자만 450여명, 피해 규모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오피스텔 중복 분양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른 시행사 대표 등 일당은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이며, 대표 박씨 외엔 경찰의 소환 통보에 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호기자 khh@



“친구를 구하자” 24일 새벽 1시에 화순군 화순읍 한 아파트 단지 12층 옥상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낸 20대 운전자가 자살 소동을 벌이자 친구들이 뒤따라 올라가 만류하고 있다. 이 운전자는 가족과 친구들의 끈질긴 설득 끝에 2시간30여분만에 옥상에서 내려왔다.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음주 교통사고 낸 20대 아파트 옥상 자살 소동 2시간30분만에 구조

음주 교통사고를 낸 20대 운전자가 자살소동을 벌였다가 경찰에 구조됐다.

24일 화순경찰에 따르면 이날 새벽 1시46분께 화순군 화순읍 한 아파트 단지 12층 옥상에서 술에 취해 자살소동을 벌이던 A(20)씨를 구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3일 밤 화순읍의 한 주점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101%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아 이 아파트 단지로 왔고, 아파트에 주차된 승용차와 화물차 2대를 연속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사고 후 피해차량 차주와 사고 경위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날 오후 11시15분께 아파트 12층 옥상에 올라가 자살 소동을 벌였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의 부모·친구들과 함께 A씨를 설득해 2시간30여분만에 안전하게 구조했다.

이 소동으로 화순경찰서 인질협상대응팀과 경찰특공대 등 경찰 25명, 화순소방서 구급대원 10여명 등 총 35명 가량이 출동했으며, 1층에는 만약을 대비해 에어매트를 깔고 구급차량과 고가 사다리를 배치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아파트 주민 등 100여명도 마음을 졸여야 했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화순경찰서 박주재 인질사건전문대응팀장은 “자살·자해 소동과 같은 본인 신체에 대해 행위를 할 경우 마땅한 제재 규정이 없는 데다 처벌보다는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부모·친구들과 함께 2시간여동안 설득해 구조했다”고 말했다. /화순=배영재기자 byj@

화장실 여성에 음주 행패 20대男

○...만취 상태로 광주시 서구청 청사 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화장실 칸막이 문을 마구 두드리며 소리를 피운 20대 남성이 경찰서행.

○...23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일정한 직업이 없는 하모(26)씨는 지난 23일 오전 9시30분께 서구청 1층 민원실 인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공무원 A(여·31)씨가 머무르고 있던 화장실 문을 1분여간 실재없이 두드렸다는 것.

○...구청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분석한 경찰은 하씨가 A씨를 따라 여자화장실 내부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하고 성폭력범죄특별법 위반 혐의를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런 짓을 벌인 하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오리발.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신안 섬에 출장 법정...목포지원 비급면서 31일 첫 재판

군 법원이 없는新安 섬에 법정을 설치, ‘출장 재판’을 연다. 신안은 인천 옹진군과 함께 군 법원이 없는 곳으로, 섬 주민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출장 법정’을 마련한 것이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오는 31일 오전 11시20분 신안군 비급면사무소 2층에서 ‘목포지원 섬소리 법정’을 개청, 첫 재판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법정에는 판사 1명과 직원 2명으로 구성된 전담 재판부가 선고 2건, 재판·조정·검증 각 1건 등을 진행한다.

섬소리 법정은 매월 또는 격월제로 안좌면, 비급면, 하의면 등 3개 면을 순회하며 설치된다. 주민들이 목포에 있는 목포 지원으로 나오지 않고도 민·가사소송,

가족관계등록(개명 등) 및 조정 사건 등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소액사건, 협의이혼 의사확인 등은 물론 지역 내 토지 분쟁이나 현장 검증 등이 필요한 민사 단독사건, 가사소송 등도 담당한다.

섬소리 법정에서는 재판 외에도 광주지법 목포지청의 법률상담과 목포세무서의 세무상담도 병행 실시된다.

장용기 목포지원장은 “신안군 주민들이 재판을 받으려면 3~6시간 이상 걸려 지원이 있는 목포까지 나와야 해 시간·경제적 어려움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는데 이번 순회법정 설치로 불편을 크게 덜게 됐다”며 “가급적 재판보다는 조정을 통해 섬 주민들의 분쟁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대 지

투자 가치 좋습니다

- 전남 여수시 서교동 668-7, 8번지 서교동 로타리 우리은행 바로 옆
- 대지 260평 (120평 140평 분할 가능)
- 일반 상업지역 / 6차선 도로 접 / 현, 주차장
- 시세 / 감정가 - 23억원
- 용 12억 8천만원 있음 / 법인체 인수 가능
- 매매 - 협의
- 병원 / 사무 / 무인텔 / 상가 / 대형마트 등등 적합
- 1층 조립식 건축 후 상가 임대료 1,200만원 예상
- 주인직매 H. 010-8829-6876

숙 박

호텔급 대형 모텔

-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지리산 온천지구 내 송원리조트 앞
- 대지 573평 건물 719평 객실 58개
- 시세 / 감정가 - 15억
- 매매 - 10억 (조정가능)
- 경매로 7억 3000만원에 낙찰
- 용 6억 3000만원 있음, 법인체 인수 가능
-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준비중 (공사비 4억 예상)
- 리모델링 후 연 4억 이상 순수익 가능
- 리모델링 후 20억 이상 매매 가능
- 소유자 H. 010-3605-5000

오 천 경 매

▶ 투자 하실 분 / 공동 투자 가능 연 20% 수익 보장

▶ 비법 배우실 분 / 특수물건만 취급 교육비 등 1200만원

▶ 사무실 같이 쓰실 분!

(주)오 천 경 매 대표 최선규